

한국어문상大賞 수상

한국어가 있다

한국인도 헷갈리기 쉬운 한국어 표현들
容易混淆的韩国语词汇

1

한국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열광한 한국어 바꾸기

한국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팀 지음

민족출판사

한국인도
헛갈리기 쉬운
한국어 표현들

한국어가 있다 1

한국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팀 지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容易混淆的韩国语词汇.1 / 韩国《中央日报》语文研究所
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5.12

ISBN 7-105-07455-8

I. 容… II. 韩… III. 朝鲜语—词汇 IV. H5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54537号

北京市版权局著作权合同登记号 图字: 01-2005-6053

本书由韩国Communication Books授权民族出版社独
家出版发行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月第1版 2006年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8 字数: 227千字

印数: 000 1-3 000册 定价: 19.8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주 틀리는 말을 비롯해, 표현이 맞지만 어색한 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 해설서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실용적인 예들이 들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들과 대학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초급 단계를 넘는 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이 글에 열광했듯이, 중국 내 한국어 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한국어가 있다』를 중국에서 펴내며

이 책은 한국 중앙일보가 약 2년 동안 ‘우리말 바꾸기’ 난을 통해 연재한 것을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엮어 펴낸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주 틀리는 말을 비롯해, 표현이 맞지만 어색한 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 해설서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실용적인 예들이 들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들과 대학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초급 단계를 넘는 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이 글에 열광했듯이, 중국 내 한국어 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2006년 1월

추천사

현대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은 우리 생활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말과 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어떠한 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 번 쓰인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일상적인 말로 자리 잡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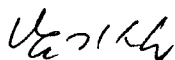
신문, 방송이 언어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책임 또한 막중하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일보가 ‘우리말 바꾸기’ 난을 만들어 2년 가까이 올바른 우리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온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에서 우리말을 갈고닦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우리말과 글은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 이 책에도 그러한 정신을 담고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국어원

원장 남기심



책을 펴내며

우리말과 글을 바로 쓰는 데 누구나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2003년 3월 중앙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우리말 바꾸기’는 약 2년간 442회를 이어왔다. 문법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씀으로써 독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맞춤법 해설서 같은 느낌을 주는 기존 글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초기의 방향 설정이 독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우리말 고정란을 마련해 매일 아침 독자와 함께했다는 점에서 많은 격려와 상을 받기도 했다.

칼럼의 소재는 일반인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잘못 알고 있거나 헛갈리기 쉬운 것을 골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외국어, 생활 속에 파고든 일본말이나 일본식 한자어도 다루었다. 또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 알리려고 노력했으며, 문장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말 바꾸기’의 특징은 널리 사용하는, 살아 있는 예문에 있다. 정형화된 것은 피했다. 그렇기에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한국어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 내려고 한다.

문화관광부 의뢰로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서울 거주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2002년 9월)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국어 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국어 능력만 중시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홀대하고, 인터넷 언어다 외계어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국어를 파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어의 장래가 참 걱정스럽다.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다. 한국어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창조해 온 바탕이었다.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

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시대에도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이 빛나고 있다. 한국이 인터넷, 나아가 정보기술(IT) 강국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138개라고 한다. 세계적 민간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세계 언어 중 50~90%가 금세기 말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스스로 가꾸지 않는 언어는 외국어에 밀려 사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즉 글쓰기 실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수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글쓰기·논술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어가 있다』가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글쓰기 능력과 논술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말 바꾸기’를 아껴주신 중앙일보 독자와 『한국어가 있다』를 펴내는 데 정성을 다해 준 커뮤니케이션북스의 박영률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 팀

이정근, 최성우, 배상복, 한규희, 김준광, 김형식, 김승욱, 권인섭, 이은희

차례

『한국어가 있다』를 중국에서 펴내며

추천사

책을 펴내며

■ 제1부 바른 말과 글이 실력이다

01 바른 표현, 건강한 글

‘지그시’와 ‘지긋이’ 4 라면이 불기 전에..... 5 ‘해거름’의 ‘고살’ 6
‘안치다’와 ‘발치다’ 7 ‘작렬’과 ‘작열’ 8 눈살 찌푸린 등쌀 9
장맛비, 그리운 해님 10 미끄러운 미끄럼 11 ‘빠르다’와 ‘이르다’ 12
또 늦었어! 13 화를 ‘돋구면’ 안 돼요 14 반갑지 않은 손님 15
‘반증(反證)’과 ‘방증(傍證)’ 16 가늠/가름/갈음 17 겹말을 피하자 1 18
겹말을 피하자 2 19 겹말을 피하자 3 20 ‘잊혀진(?) 계절’ 21
‘가지다’를 버리자 1 22 ‘가지다’를 버리자 2 23 좋은 하루 되세요(?) 24
이름 짓기 25 ‘평가하다’와 ‘때문에’ 26 ‘매다’와 ‘매다’ 27
‘빌리다’와 ‘빌다’ 28 ‘줄이다’와 ‘조리다’ 29 굵신거리다(?) 30
‘한참’과 ‘한창’ 31 참석, 참가, 참여 32 ‘충돌’과 ‘추돌’ 33
‘시간’과 ‘시각’ 34 ‘오랜만에’와 ‘오랫동안’ 35
‘널-’ ‘널-’ ‘넙-’의 표기 36

02 말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다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 38 작업량/구름양/벡터양 39
시장 갔다 올게(?) 40 그러고 나서/그러고는 41 그제 아니예요(?) 42
맞춤법 비켜가기 43 칠칠한 맞춤법 44 ‘-읍니다’와 ‘-습니다’ 45
때려야 뭘 수 없는 관계란? 46 뒤처리를 부탁해요 47
취업란/사람난/레저란 48 ‘이’ ‘히’ 거참 헛갈리네 49
‘곤혹스런’인가, ‘곤혹스러운’인가 50 ‘음반이요?’ 51

내일 전화할게/집에 갈까 52 첫발을 디뎠다 53
 '당신은 누구시길래'(?) 54 낯설음/거칠음(?) 55 네가, 제가/니가, 지가 56

03 틀리기 쉬운 말

'정한수(?)' 떠 놓고 58 가열하게, 야열치게 59 점쟁이 60
 통째로/통채로 61 남세스러워 혼났어 62 '맨날' 놀다가(?) 63
 결판나다 64 솟 쥐는 수놈이다 65 언즈시(?) 말해요 66
 '죽집게'와 '짜깁기' 67 '책갈피'와 '서표' 68 찹찹한(?) 여행 69
 구렛나루(?) 70 '꺼어들기' 하지 마 71 주위 산만(?) 72
 머리가 벗겨지면 큰일 73 '어거지'를 부리면 안 되지요 74
 고개를 떨구다(?) 75 '나꿔채고' '매꾸면' 안 돼요 76
 '예부터'와 '예스럽다' 77 서너/너덧(네댓) 78 '통틀다'와 '서슴다' 79
 금세/늘/여태껏 80 '좀체로'와 '으레'(?) 81 귀땀/괘스레 82
 지리하다(?) 83 흥측한 물골 84 '콧망울'이 예쁜 그? 85
 '깨치다'와 '깨우치다' 87 '어리숙하다'(?)와 '허수룩하다'(?) 88

04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비치다'와 '비추다' 90 결코 '맞먹을' 수 없는 '버금가다' 91
 '첫째'와 '첫 번째' 92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93 벚꽃이 피었데 94
 '다르다'와 '틀리다' 95 '곤혹'과 '곤욕' 96 '아' 다르고 '어' 다르다 97
 매우, 아주, 몹시 98 해라체와 하라체 99 '놀이다'와 '놀리다' 100
 '밀어부친다'고 다 됩니까? 101 김치를 먹든가 시금치를 먹든가 102

‘-하므로’와 ‘-함으로’ 103 나도 표준어 104 ‘들이키다’와 ‘들이켜다’ 105
 ‘첫’과 ‘처음’ 106 ‘봉숭아’와 ‘복숭아’ 107 ‘어떡해’와 ‘어떻게’ 108
 ‘작으냐?’ ‘작니?’ 109 긴 밤을 (지)새우다 110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111
 ‘-에’/‘-에게’는 구분해야 112
 재(齋)를 지내십니까? 제(祭)를 지내십니까? 113
 ‘구설’과 ‘구설수’ 114 ‘갈갈이’와 ‘갈거리’ 115 ‘잇달다’와 ‘잇따르다’ 116
 ‘외곬’과 ‘외골수’ 117 ‘기쁘다’와 ‘즐겁다’ 118 ‘성은’과 ‘승은’ 119
 ‘깍질’과 ‘깍데기’ 120 이견(異見)을 좁히다(?) 121 승부욕(?) 122
 ‘차로’와 ‘차선’ 123 ‘상서로운’과 ‘상스러운’ 124 기지개를 펴다(?) 125
 알은척하다 126 ‘안’과 ‘못’ 127 ‘쫓다’와 ‘쫓다’ 128
 저희 나라(?) 129 뇌졸중(?) 130 ‘이용’과 ‘사용’ 132

■ 제2부 말 속에 삶이 있다

01 말과 생활

‘옷매무새’와 ‘옷매무시’ 136 ‘윗옷’과 ‘웃옷’ 137 장 담그셨나요? 138
 ‘육개장’과 ‘닭개장’ 139 돈나물(?) 140 명태와 이면수(?) 141
 숟가락과 젓가락 142 ‘반지락’과 ‘아나고’ 143 총각김치 144
 ‘출산율’과 ‘성장률’ 145 ‘피로를 회복하면’ 어떡하죠? 146
 ‘쓰레기 분리 수거’는 누가 하나? 147 과반수 이상(?) 148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 149 사스 임산부(?) 150 내 탓이오 151
 ‘손톱깎이’와 ‘연필깎이’ 152 귀지개로 컷밥을 파다? 153

눈곱/눈살/등쌀 154 ‘끼’와 ‘바람기’ 155 ‘시치다’와 ‘꽤매다’ 156
늑장/늑장 157 반나절 생활권 158

02 말과 경제

장사 잘돼? 160 ‘세금’과 ‘요금’ 161 로또 복권 162 시세 조정(?) 163
‘쇠발개발’과 ‘오리발’ 164 실업난(?) 165 ‘벌이다’와 ‘벌리다’ 166
전셋값, 삭월세(?) 167 ‘그러모으다’와 ‘긔어모으다’ 168
‘과태료’와 ‘벌금’ 169 하락세로 치달다(?) 170
나아질는지, 괜찮을는지 172 ‘결재’와 ‘결제’ 174

03 말과 문학

‘우레’가 운다 176 오늘은 웬지..... 177 가정의 달에 ‘안갯름’을 178
‘어떤 개인(?) 날’ 179 ‘산 너머 산’이라고요? 180 가까이와? 가까워? 181
푸르른(?) 182 ‘줘여 주다’인가, ‘줘여 주다’인가 183
‘허섭스레기’와 ‘허접스럽다’ 184

04 말과 여가

밥은 먹고 다니냐(?) 186 ‘부문’과 ‘부분’ 187 두사부일체 188
‘노름’ 말고 ‘놀음’을 189

05 말과 자연

하늘말라리아(?) 192 괴나리봇짐 193 ‘산림욕’과 ‘삼림욕’ 194
‘용트림’과 ‘용틀임’ 195 ‘아지랑이’와 ‘아기’ 196
시푸른 하늘, 셋말간 얼굴 197 가파라지다(?) 198
‘패였다’와 ‘채였다’ 199 ‘구비구비’와 ‘뭉개뭉개’(?) 200

■ 제3부 우리말의 지평을 넓히자

01 한자성어

풍비박산/절체절명/주야장천 204 양동작전 205 ‘사단 난 일사분란’ 206
신토불이(身土不二) 207 첩첩산중 208

02 외래어

‘입장’을 바꿔보자 210 ‘바캉스’와 ‘다이어트’ 211
자장면은 곱빼기가 맛있다 212 ‘현수막’과 ‘횡단막’ 213 세리머니? 214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215 ‘굴착기’와 ‘굴삭기’ 216 린치 217
‘~에 다름 아니다’ 218 가마리 219 ‘~에 있어(서)’를 피해 보자 220
무데뽀(?) 221 더 이상(?) 222 켄 스타일 224
‘세일’과 ‘리베이트’ 225
찾아보기 227

제1부

바른 말과 글이
실력이다

01

바른 표현, 건강한 글

‘지그시’와 ‘지긋이’ 4 라면이 분기 전에..... 5
 ‘해저름’의 ‘고살’ 6 ‘안치다’와 ‘발치다’ 7 ‘작렬’
 과 ‘작열’ 8 눈살 찌푸린 등쌀 9 장맛비 그리
 운 해님 10 미끄러운 미끄럼 11 ‘빠르다’와 ‘이
 르다’ 12 또 늦었어! 13 화를 ‘돋구면’ 안 돼요
 14 반갑지 않은 손님 15 ‘반증(反證)’과 ‘방증
 (傍證)’ 16 기쁨/가쁨/갈음 17 접말을 피하자 1
 18 접말을 피하자 2 19 접말을 피하자 3 20
 ‘잊혀진(?) 제절’ 21 ‘가지다’를 버리자 1 22
 ‘가지다’를 버리자 2 23 좋은 하루 되세요(?)
 24 이름 짓기 25 ‘평가하다’와 ‘때문에’ 26
 ‘매다’와 ‘매다’ 27 ‘빌리다’와 ‘빌다’ 28 ‘줄이
 다’와 ‘조리다’ 29 급신거리다(?) 30 ‘한참’과
 ‘한창’ 31 참석, 참가, 참여 32 충돌과 추돌
 33 ‘시간’과 ‘시각’ 34 ‘오랜만에’와 ‘오랫동안’
 35 ‘넙-’ ‘널-’ ‘넙-’의 표기 36

‘지그시’와 ‘지긋이’

“아랫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다.

‘지그시’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다.

첫째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손바닥을 사용해 눈가를 지그시 눌러 주면 피곤한 눈을 진정시켜 줄 수 있다” “질화로는 지그시 누르는 넓적한 불돌 아래, 밤새도록 저 혼자 불을 지니고 보호하는 미덥고 덕성(德性)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와 같이 쓰인다.

둘째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표현한다. “두통을 지그시 참다.” “그의 태도에 분노가 일었지만 지그시 참았다” 등의 ‘지그시’가 그런 사례다.

‘지긋이’는 ‘지긋하다’에서 온 부사이며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

첫째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앞에 앉은 남자 두 명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였다”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둘째는 ‘참을성 있고 끈지게’라는 뜻으로 쓴다. “우경이는 아직 어려서 책상 앞에 지긋이 앉아 있지 못한다” “그렇게 안달하지 말고 지긋이 기다려 봐”에서 ‘지긋이’는 ‘끈기 있게’라는 뜻으로 쓰였다.

서두에 나온 문제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지그시’가 맞다.